

  <b>제주특별자치도</b> <small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</small>		2019. 7. 5.(금) 10:00 <b>배포일시 이후</b> 보도할 수 있습니다		
<b>상하수도본부</b>	<b>보도자료</b> PRESS RELEASE	상수도부장	현공언	750-7800
		상수도정책시설과장	고범녕	750-7810
동영상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사진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후속자료 : 없음

## ‘우리 집 수도물은 안전한가?’ 수질검사 방문 실시

- 가정 내 수도꼭지 수질검사 무료 실시 및 수질관리 안내·상담 운영 -

-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(본부장 고윤권)가 도민들이 직접 수도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‘우리 집 수도물 안심확인제’ 홍보에 적극 나섰다.
- 상하수도본부는 최근 육지부 일부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붉은 수도물과 관련해, 가정에서 마시는 수도물이 안전한지 도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‘우리 집 수도물 안심확인제’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.
- 수질검사는 상하수도본부 수질검사팀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수도물을 채취하고 탁도, 색도, 잔류염소 등 8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, 수질검사는 무료이다.
- 특히, 도민들에게 수도물 이물질 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저수조 청소 및 노후 옥내 급수관 관리요령 등 수도물 수질과 관련된 안내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등 수도물의 안전성과 인식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

-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가정은 온라인(환경부 물사랑 홈페이지 <https://ilovewater.or.kr>) 또는 전화(064-750-7868,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수질검사팀)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.
- 한편,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던 ‘무료 수도꼭지 수질검사’ 를 2014년 10월부터 정부시책에 따라 ‘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’ 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.
- 지난해까지 1,493가구가 ‘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’ 를 신청하는 등 연평균 250여 가구가 참여했으며, 올해는 6월말 현재 141가구가 수질검사를 신청했다.
- 고윤권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은 “도민이 직접 수질을 확인함에 따라,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” 고 말했다.
- 이어 “도내 가정에서도 수질이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‘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’ 를 이용해 달라” 고 당부했다.